

退溪의 「天命圖說後叙」에 관하여**

—특히 「太極圖」와의 比較를 중심으로—

朴 洋 子*

I

「天命圖說後叙」는 退溪(1501~1570, 이름은 滉, 자는 景浩, 退溪는 그의 號)가 53세 되던 해, 鄭秋巒(1509~1561, 이름은 之雲, 字는 靜而, 秋巒은 그의 號)이 지은 「天命圖」와 「天命圖說」을 정정하게 된 경위와 「天命圖」의 내용 및 그 작성 의도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한 것이다.

「天命圖」의 구조는 이전부터 朱子學에서 중시되어 온 「河圖」·「洛書」·「先天圖」·「後天圖」, 그리고 「太極圖」와는 외형상으로 현저하게 다른 점이 있었다. 전통적으로 중시되어 온 이러한 圖書는 성현이 天意를 받아서 작성한다는 것이 당시의 통념이었으므로, 退溪는 어떠한 형태로든 전통적인 권위에 도전한다는 비난¹⁾을 무마시키고, 또 전통적인 圖書와 외형상으로는 비록 다른 점이 있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朱子の 學說을 사용하고 「太極圖」에 의거하면서, 『中庸』의 大旨를 기술했을 뿐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²⁾, 이 「天命圖說後叙」를 작성했던 것이다.

* 강릉대 철학과 교수

** 퇴계학 연구원, 『퇴계학보』 제68호(1990) 게재논문

1) 甚矣, 鄭生之僭踰而吾子之愚妄也. 滉瞿然曰何謂也. 客曰河洛呈瑞, 義禹因之而作易範, 五星聚奎, 周子應之而建圖說. 由是觀之, 圖書之作, 皆出於天意而必有聖賢者作, 然後始可爲也. 彼鄭生, 何人而敢爲圖, 子亦何人而敢效尤歟.

2) 今是圖也, 不過用朱子說, 據太極之本圖, 述中庸之大旨, 欲其因顯而知微, 相發而

「天命圖說後叙」는 짧은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後叙」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는 질의응답 속에는 退溪 사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 사상이 들어 있다고 생각된다. 본문에서는 「後叙」가 지니고 있는 많은 문제점 가운데서도 특히 周濂溪(1017~1073, 이름은 惇頤, 字는 茂叔, 濂溪는 그의 號)가 지은 「太極圖」와 退溪의 「天命新圖」를 비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논술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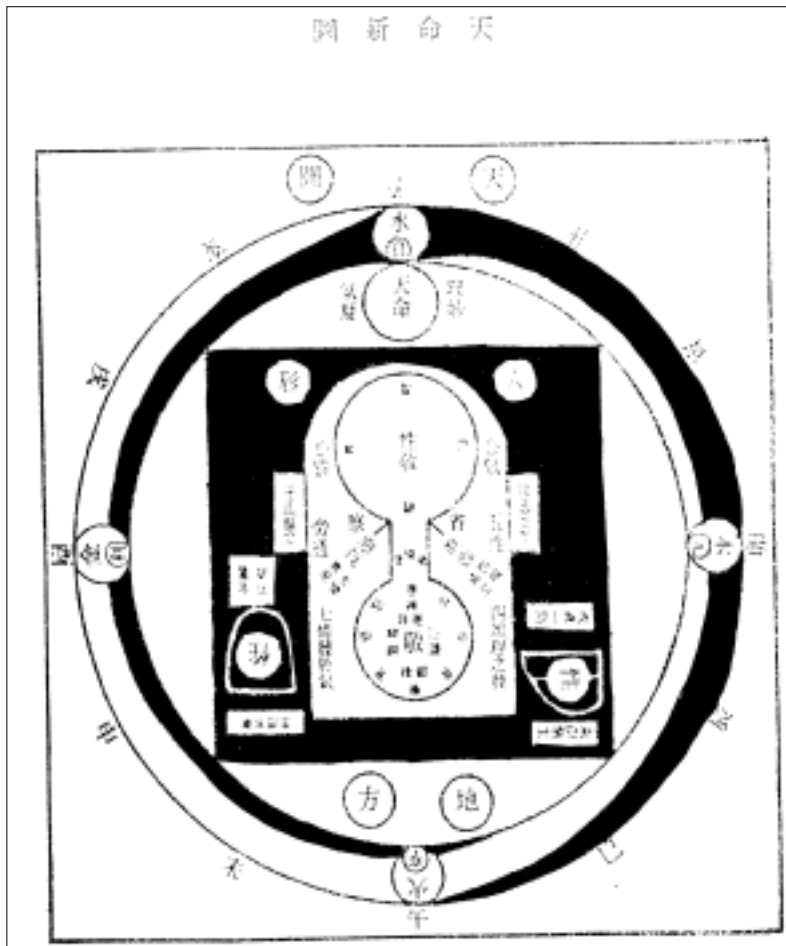
II

「太極圖說」은 宋學의 開山先河라고 일컬어지는 周濂溪의 遺著이다. 「太極圖說」은 『周易』의 綱領을 설파한 것으로 자연계와 인간계의 理法과 이들을 근거에서 지탱해 주고 있는 근본 원리를 설명한 저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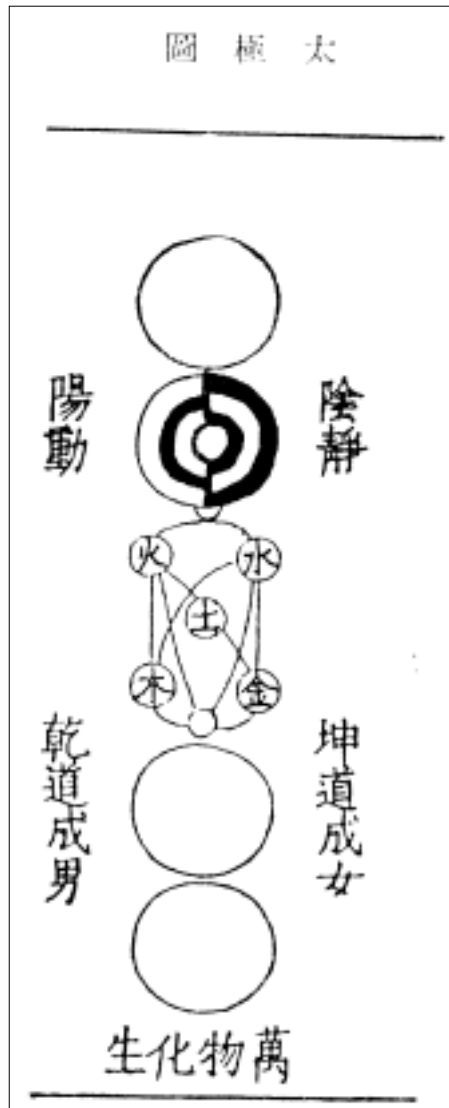
「太極圖」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그 기원이 道家에 있다고 하여 儒家 사상으로서의 순수성을 의문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朱子가 이 「太極圖」와 「太極圖說」의 사상 내용을 높이 평가하여 「太極圖說解義」를 지어 「太極圖」가 지니고 있는 깊은 哲理를 천명한 이래, 『近思錄』에도 수록되고 四書·『西銘』과 더불어 朱子 門下에 있어서의 기본적 교과서로 되었다. 『朱子年譜』에 의하면, 慶元 6년 3월 朱子가 사망하기 바로 직전에 학생들을 위하여 「太極圖」와 『西銘』을 강의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사실을 보더라도 「太極圖」에 대한 朱子의 관심이 대단했던 것을 알 수 있고, 退溪도 朱子의 이러한 사상을 계승하여 『聖學十圖』에서 「太極圖」를 第一圖로 삼고 있다.

易曉, 如斯而已, 何深過之有.

<그림> 천명신도: 퇴계학보 68집 p.102 참조



<그림> 태극도: 퇴계학보 68집 p.111 참조



「天命圖」와 「太極圖」는 그 구성 내용에 있어서 서로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는데, 우선 서로 다른 점에 대하여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太極圖」는 太極-陰陽-五行-乾坤男女-萬物生成의 五層으로 되어 있는데, 「天命圖」는 오직 단 하나의 圓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점이다. 退溪는 「後叙」에서 「太極圖」가 太極·陰陽·五行·氣化·形化라는 다섯 단계로 나누어 표시한 것에 대하여, 「太極圖」는 理氣의 본원을 우선 분명히 한 다음에 造化의 機妙를 드러내는 것이 本旨인데 반하여, 그러나 「天命圖」 쪽은 人物의 稟賦에 의해서 理氣의 化生을 더듬어 밝혀 올라가는 것이 그 요지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³⁾ 환언하면 形而上의 道와 그 작용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太極圖」이고, 形而下的 현상 세계의 구조를 밝혀서, 그 기초 위에 서서 造化의 근원을 미루어 찾아내는 것이 「天命圖」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 「太極圖」에는 陰 가운데 陽이 있고, 陽 가운데 陰이 있는데, 「天命圖」에는 그것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 退溪는 「後叙」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로 설명하고 있다. 즉 陰陽의 관계를 對待를 주로 해서 볼 것이냐, 아니면 運行을 주로 해서 볼 것이냐에 따라 圖를 기술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太極圖」의 第二圈인 陰陽層은 왼쪽이 陽動, 오른쪽이 陰靜으로 對待해 있고, 五行層도 왼쪽이 火木으로 陽, 오른쪽이 水金으로 陰을 배치하여 左陽·右陰이 對待하고 있다. 이는 第四圈에서도 마찬가지로 왼쪽이 乾道成男, 오른쪽이 坤道成女로 되어 左陽·右陰을 일관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天命圖」의 天圓은 陰陽이 유행하여 순환하는 것을 주로 하였기 때문에, 때를 만난 것 즉 陽은 圓의 안쪽에 두고, 이미 功을 이룬 것 즉 陰은 天圓의 바깥쪽에 두되, 陰이 극성한 子에서 陽의 시작이 이어지고, 陽이 극성한 午에서 陰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것은 「太極圖」에서 第二圈의 陽動이 변하여

3) 各有所主, 濂溪闡理氣之本原, 發造化之機妙, 不分爲五, 無以曉人. 是圖因人物之稟賦, 原理氣之化生, 不合爲一, 不成位置, 皆不得已而爲之也.

() 陰인 水에 연결되고, 陰靜이 합하여 () 陽인 火에 연결되는 이치와 완전히 같은 것이다. 요컨대 陰陽을 對待를 주로 해서 볼 것이냐, 運行을 주로 해서 볼 것이냐의 차이일 뿐, 그 내용상에서 보면 하등 「太極圖」의 宗旨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退溪의 생각이다.⁴⁾

세 번째로 「太極圖」에는 元亨利貞이 없는데 「天命圖」에는 天의 四德인 元亨利貞이 있는 이유에 대하여, 退溪는 周濂溪의 「太極圖說」에 보면, 「五行이 생함에 있어서 각각 그 性을 하나씩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性은 곧 理이므로 「太極圖說」의 이른바 五行之性이란 바로 이 元亨利貞을 이르는 것이라고 「後叙」에서 설명하고 있다.⁵⁾ 朱子の 「太極圖說解義」의 「五行之生也, 各一其性」條⁶⁾, 『周易』 乾卦 文言傳의 元亨利貞을 해설하는 程伊川의 『易傳』⁷⁾ 및 朱子 『本義』의 해석⁸⁾과 같이 退溪도 이로써 天人合一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退溪가 「天命圖」 가운데에서 天圓에 天德인 元亨利貞을 설정하고 五行의 氣로서의 木火金水를 넣은 것, 그리고 地方 가운데의 위의 圖에 仁義禮智를 넣은 것도 실은 모두 天人合一 사상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天命圖說」 第一節 論天命之理, 第二節 論五行之氣, 第三節 論理氣之分, 第四節 論生物之原 등에 그 설명이 자세하다.

네 번째로 「太極圖」에는 地와 人과 物의 형태가 없는데 「天命圖」에는 그것이 있는 이유에 대하여 退溪는, 「天命圖」의 地方 쪽에 해당되는 人物을 形容한 부분은, 「太極圖」의 乾道成男·坤道成女와 第四圈의 萬物

4) 陰之自子至午, 爲陽中陰, 陽之自午至子, 爲陰中陽. 圖與濂溪皆然也. 但彼主於對待, 故包容在主之中, 此主於運行, 故當時者在裏, 成功者在表, 其實一也.

5) 濂溪圖說曰, 五行之生也, 各一其性, 性卽理也. 則彼所謂五行之性, 卽此元亨利貞之謂也, 豈可謂彼無而此有之乎.

6) 五行之性, 隨其氣質, 而所稟不同, 所謂各一其性也. 各一其性, 則渾然太極之全體, 無不各具於一物之中, 而性之無所不在, 又可見矣.

7) 四德之元, 猶五常之仁. 偏言則一事, 專言則包四者.

8) 本義曰, 元者生物之始, 天地之德, 莫先於此. 故於時爲春, 於人則爲仁, 而衆善之長也. 亨者生物之通, 物至於此, 莫不嘉美. 故於時爲夏, 於人則爲禮, 而衆美之會也. 利者生物之遂, 物各得宜, 不相妨害. 故於時爲秋, 於人則爲義, 而得其分之和. 貞者生物之成, 實理各足. 故於時爲冬, 於人則爲智, 而爲衆事之幹.

化生을 본뜬 것이며, 또 이것은 「太極圖說」가운데의 「無極之眞, 二五之精, 妙合而凝, 乾道成男, 坤道成女, 理氣交感, 化生萬物, 萬物生生而變化無窮焉」條의 宗旨를 祖述 부연한 것으로, 「天命圖」와 「太極圖」 사이에 하등 有無·同異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⁹⁾

다섯 번째로 「太極圖」의 第二圈 즉 陰靜陽動圈에는 左가 陽이고 右가 陰이 되어 있는데, 「天命圖」의 方位는 左陰右陽, 前子後午로 되어 있어 「太極圖」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되어 있는데, 退溪는 「後叙」에서 이는 方位를 바꾸어 놓은 것이 아니라 다만 圖를 보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 北에서부터 볼 것인가, 아니면 손님이 되어 南쪽에서 볼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될 뿐이라고 한다.¹⁰⁾ 「太極圖」가 왼쪽을 陽動이라 하고 오른쪽을 陰靜이라 하는 것은 「河圖」·「洛書」¹¹⁾에 근본을 두고 있는 것으로

-
- 9) 若夫地與人物之形, 亦於圖說取之. 所謂眞精妙合, 成男成女, 化生萬物, 萬物生生而變化無窮者, 非人物而何. 吾固曰此圖因人物之稟賦, 原理氣之化生而作, 則地亦一物也. 然則形人物而并形地, 皆有所祖述. 子何疑有無同異於其間哉.
- 10) 此非方位之易置也, 第因觀者之於圖, 有賓主之異耳. 何者, 河洛以下, 凡圖書之位, 皆自北爲主, 而觀者亦由北從主而觀之. 是圖與人, 無賓主之分, 故前後左右東西南北, 皆不易也. 今此則圖爲主在北, 觀者爲賓在南, 由賓而向主, 自南而觀北, 故其前後左右, 由觀者之向背而互易耳. 非天地東西南北之本位有變也.
- 11) 河圖·洛書는 陰陽五行을 十數와 九數로 상징화한 것으로, 『周易』繫辭傳 11장에 「河出圖, 洛出書, 聖人則之」라고 기록되어 있어, 河圖·洛書는 하늘이 낳은 신물로 그 성격이 아주 상징적이며, 천지의 변화를 상징하고 人事의吉凶을 예견시켜 주는 垂象으로, 따라서 聖人の 法象으로 삼아야 할 規範이라 하고 있다. 河圖·洛書를 이해하는 학설에는 河洛을 一元的 맥락에서 이해하는 劉牧 같은 학자도 있고, 前漢末의 劉歆처럼 伏羲가 河圖를 얻어서 八卦를 劃하고, 夏禹가 洛書에 의해서 洪範九疇를 기술했다는 河洛二元論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으나, 朱子는 『易學啓蒙』本圖書 第一에서 孔安國의 『尚書』顧命의 河圖注와 洪範九疇를 통합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朱子는 『五行志』에 보이는 劉歆說에 대하여 河圖·洛書를 발생적으로 다른 二元的인 것으로 보고, 『周易』繫辭傳에서 河洛을 연칭해서 聖人 法象의 規範을 삼는다는 文意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 先天圖는 八卦의 方位와 次序를 『周易』繫辭傳上 卷11장 「易有太極云云」이하에 의해서 해명하고, 또 說卦傳의 「天地定位, 云云」에 의하여 그 方位를 乾南·坤北·離東·坎西·兌東南·震東北·巽西南·艮西北이 되고, 南의 乾一과 北의 坤八을 합치면 九가 되는데, 이하 마주보고 있는 다른 卦들도 합치면 다 九

서, 위쪽을 午, 아래쪽을 子, 왼쪽을 卯, 오른쪽을 酉의 方位로 하는 것 역시 萬世不易의 위치로 되어져 왔다. 전통적인 諸圖는 대체로 天의 중심인 北極으로부터 이 세계를 보는 입장에서 묘사되어 있다. 이는 天子 南面의 입장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天命圖」 쪽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天命을 우러러본다는 관점에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天子의 존재를 특별히 취급하고 있지는 않다.

이 밖에도 「天命圖」에는 「太極圖」에는 없는 人과 物을 圖 가운데 기입하고 있고, 또 北을 上으로 하고, 南을 下로 하고 있으며, 「太極圖」에는 없는 人과 禽獸와 草木의 형태를 方圓·橫逆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天命圖」의 人物圖에 기재되어 있는 心性情意善惡의 구분과 四端七情의 發은 『中庸』이나 「太極圖說」의 所說과 거의 합치하고 있다.

이처럼 「天命圖」와 「太極圖」 사이에는 그 형태적인 면에서 상이점이

가 된다. 先天方位는 天地開闢 이전부터 정해진 자연의 理法에 따라서 만든 八卦의 配列方位를 뜻하고 있다.

後天圖는 천지만물이 이미 그것이 운행 변화되는 理에 따라서 만든 八卦배열인데, 說卦傳 「帝出乎震, 齊乎巽, 相見乎離, 致役乎坤, 說言乎兌, 戰乎乾, 勞乎坎, 成言乎艮」에 의하여 그 방위는 坎北, 離南, 震東, 巽東南, 乾西北, 艮東北이 된다. 說卦傳에는 兌, 坤은 누락되어 있으나 유추해 보면 兌西, 坤西南이 되리라.

先天圖는 伏羲八卦方位에 연계시키고, 後天圖는 文王八卦方位에 연계시키고 있으나, 先天後天圖는 그 어느 것도 北宋의 邵康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八卦방위에 관한 사고방식은 漢代에도 있었고, 後天八卦방위가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으나, 先天사상은 後天 즉 『周易』의 八卦의 방위와 次序에 대하여 새로운 근거를 부여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이례라면 宋學的 所産이라 할 수 있다.

朱子가 圓星-河圖-十數, 方土-洛書-九數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邵雍의 『皇極經世書』 觀物外篇上에 圓星方土說을 따르는 것이며, 『周易本義』에서 朱子가 八卦生成의 次序를 一陰-一陽으로 설명하는 것도 邵雍의 先天八卦의 次序를 따르는 것이다.

退溪가 『太極圖說』을 위시로 中國의 전통적인 제도인 河洛先天後天圖에 대하여 남다른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聖學十圖』 이외에도 朱子の 『易學啓蒙』에 대한 傳疑를 지은 점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많은데 비하여 단 한가지 동일한 것은, 「天命圖」도 「太極圖」도 위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河圖」·「洛書」·「先天圖」·「後天圖」와도 서로 다르다. 「太極圖」와 河洛先天後天圖가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하여 退溪는, 북쪽에서 남쪽을 향하고 後子(北)를 下로 하고, 前午(南)를 上으로 하고 있는 것은 河洛 이하 모두 그러하나,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차이는, 陰陽 理氣의 변화를 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만물을 생성하는 上天의 命 쪽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¹²⁾ 陰陽의 流行을 주로 해서 설명한다면, 예컨대 『周易』의 卦로 대표되어지는 것처럼, 陽氣는 아래에서 생겨서 위로 움직여 가므로 下에서 上으로 향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退溪의 이른바 上帝降衷의 최초의 源頭이며 品彙根抵의 극치인 天命을 주로 해서 말할 것 같으면, 위는 天命에서 시작하여 아래는 만물에 이르게 되므로, 上에서 下로 향하게 된다. 「太極圖」도 理氣의 本源을 더듬어 올라가 찾고 造化의 機妙를 발명하여 上天이 만물에게 命하는 道에 대하여 핵심을 두고 있으므로 上에서 시작하여 下로 향하는데, 이 점에서는 「天命圖」도 완전히 일치한다. 그러나 方位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다. 「太極圖」의 경우에는 上은 午方(南)火旺의 자리(夏)에 해당되고 있으나, 「天命圖」에 있어서는 上은 子方(北)水旺의 자리(冬)에 해당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伏羲先天圖」나 「文王後天圖」에 있어서 卦의 위치는 서로 바뀐다 하여도 위쪽이 남이 되고 아래쪽이 북이 되며 왼쪽이 동이 되고 오른쪽이 서가 되는 것은 차이가 없고, 이 점에 대해서는 「太極圖」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天命圖」에 있어서는 이와는 정반대로, 위쪽이 북이 되고 아래쪽이 남, 왼쪽이 서가 되고 오른쪽이 동이 되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天命圖」의 방위가 左陰右陽·前子後午를 설명하는 곳에서 이미 지적한

12) 自北面南而分前後左右, 仍以後子爲下, 前午爲上者, 河洛以下, 皆然也. 其所以然者, 陽氣始生於下, 而漸長以極於上, 北方陽氣之始生也. 彼圖書率以陰陽消長爲主, 而以陽爲重, 則由北而始於下, 固當然也. 至於太極圖, 則異於是. 原理氣而變化機, 示上天命物之道, 故始於上而究於下. 其所以然者天之位固在於上, 而降衷之命不可謂由下而上故也.

바와 같이, 東西南北의 방위가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天命圖」는 圖를 주인으로 하여 남쪽에서 북쪽을 보게 되므로, 그 前後左右가 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서로 바뀌어졌을 뿐, 東西南北의 본래 위치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退溪는 말하고 있다.¹³⁾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退溪全書』 권30, 答金而精 第18書와 同 第19書 別紙에 상세하다. 이 別紙에서 退溪는 『聖學十圖』 第六心統性情圖의 中圖 四性の 위치를 「天命圖」의 방위와 같은 仁右·義左·禮下·智上으로 개정하고 있는데, 이 점은 退溪사상의 추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 『聖學十圖』 第六心統性情圖 中圖의 四性の 위치는 仁左·義右·禮上·智下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종래의 圖書가 아래쪽을 北으로 하고 있었던 것은 북이 아래에 있어서가 아니라, 氣가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치를 가지고 말한 것으로, 실제로 있어서는 北極이 높고 南極이 낮으며 또한 西北은 높고 東南은 낮다고 退溪는 말하고 있다.¹⁴⁾

이 문제와 관련하여 退溪가 이 圖의 이름을 「天命圖」라 명명한 의도를 알면 退溪의 眞意는 분명해진다. 「天命圖」에는 「太極圖」에서 우주의 본체를 圖示하고 있는 第一圈인 ○(無極而太極)에 相當하는 것이 없다. 「天命圖」는 「太極圖」의 宗旨에 의거하여 만들었으므로 마땅히 太極에서 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나, 우주의 本體인 無極而太極은 形而上의 理이므로 無聲無臭하여 圖示할 수 없기 때문에, 退溪는 無極而太極인 ○을 생략하고 그 대신 理氣妙凝天命의 一圈을 세워서 이 天命을 造化의 源頭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圖의 명칭도 「天命圖」라고 했던 것이다.

따라서 「天命圖」의 주안점은 朱子가 『太極圖說解義』에서 강조하고 있는 두 방면, 즉 對待와 流行의 양 측면 중에서 流行의 측면이 아닌, 天理가 인간에게 內在된 측면인 天命에 그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前者後午·東卯西酉는 실은 氣의 流行의 측면에서 보면 종래의 「河洛先天後天圖」는 물론 「太極圖說」과도 그 取義를 달리하고 있다 할 수

13) 註 10) 참조.

14) 從來圖書, 以北爲下者, 北非下也. 由氣之從下升上而言耳. 若此圖, 自天地定形而言, 則固北極高, 南極下, 西北高, 東南下, 又何疑之有.

있으나, 그러나 이것은 天命을 위로부터 받는다고 하는 「天命圖」의 관점에 핵심을 두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相異로, 退溪도 氣의 流行을 논할 때에는 어디까지나 朱子の 『周易本義』나 『易學啓蒙』 本圖書에 의거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朱子の 「太極圖」 및 「太極圖說」 이해와 근본적으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退溪는 周濂溪의 「太極圖」의 근본취지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太極圖說』에 가름하는 『天命圖說』 그리고 朱子の 『太極圖說解義』 附論에 해당하는 「天命圖說後叙」 등 그 구성면에 있어서도 朱子の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周濂溪의 「太極圖」의 구조를 잘 살펴보면 伏羲先天八卦 방위를 기본으로 하여 陰陽對待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五行圖에서 水火木金의 위치가 四正(東西南北)이 아니고 四維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는 「太極圖」가 陰陽對待의 기본을 견지하면서 陽左陰右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苦心의 흔적이라 할 수 있다. 이 五行圖의 行序에 대한 논의는 朱子の 『太極圖說解義』를 기다려 비로소 자세하게 釋明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天命圖」의 前子後午·東卯西酉의 방위문제도 「天命圖」란 명칭이 이미 말해 주고 있듯이 天命은 위로부터 받는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데서 일어난 苦心의 흔적이라 봄이 타당할 것이다.

III

「天命圖」 작성의 기초가 되고 있는 사상이나 사고방식은 退溪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朱子學의 그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諸圖 즉 「河洛先天後天圖」 및 「太極圖」는 그 논리 전개에 있어서 우리의 상식과 멀리 떨어진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데 반하여, 「天命圖」 쪽은 朱子學의 世界觀을 圖示한 것으로서는 전통적인 諸圖보다도 아주 平明하며, 朱子學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해가 용이하다. 朱子

가 중시한 「太極圖」도 朱子의 自作은 아니고 朱子 이전의 것으로, 원래 道敎徒가 만든 圖에 周濂溪가 손을 본 것이라고 말해져 왔다. 朱子 자신은 「太極圖」·『通書』를 編定할 때까지도 「太極圖」를 周濂溪의 창작이라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기초해서 자기의 세계관을 수립했다. 朱子는 周濂溪의 학문의 妙處는 이 太極의 一圖에 전부 갖추어져 있다고 하여 그 사상적 가치를 중시하고 『通書』의 말은 모두 이 「太極圖」의 蘊奧를 나타내기 위하여 있다고 하여 周濂溪의 書를 編定함에 있어 「太極圖」를 『通書』의 篇首에 배열하고 있다.¹⁵⁾ 그러나 朱子도 후일 「太極圖」의 연원이 宋初의 道士 陳搏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¹⁶⁾ 이처럼 이미 만들어진 圖에 의거했기 때문에 朱子라 할지라도 자기 생각을 충분히 표명하기 힘든 한계점이 있었고, 또 무리도 있었을 것이다. 요컨대 「河洛先天後天圖」, 그리고 「太極圖」는 朱子 이전의 것이고, 「天命圖」는 朱子 이후의 것인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朱子의 세계관을 圖示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退溪의 「天命圖」 쪽이 朱子의 세계관을 보다 충실하고 보다 상세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더 나아가 朱子의 세계관을 朱子 이후의 사람이 圖示하려고 한다면, 결국 「天命圖」와 같이 될 것이다. 朱子의 세계관을 圖로써 나타내려고 하는 시도는 中國에서도 없었고 오직 「天命圖」만이 있을 뿐이다.

朱子 이후 3백여 년이 지나 조선 땅에 태어난 退溪가 朱子學을 존승했다고 하여도 그 사상의 수용 과정에는 당연히 상이점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상이점이 핵심에 관계되는 근본적인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退溪의 독창성에 해당되는 것으로 우리에게서 귀중한 사고 구조라고 할 것이나, 「天命圖」에 보이는 天圓의 方位가 다른 것은, 退溪의 말대로 위로부터 강림한다는 天命에 초점을 맞추어 논리를 전개했기 때문에 온 것으로, 氣의 運行을 논할 때에는 어디까지나 朱子의 『周易本義』나

15) 『朱子文集』 卷75, 周子太極通書後序 참조.

16) 『朱子文集』 卷76, 再定太極通書後序 참조.

『易學啓蒙』本圖書에 근거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退溪의 「太極圖」 이해는 대체로 朱子사상을 답습한다고 할 수 있다.

「天命圖說後叙」의 찬술은 退溪 53세 때의 저술로, 『聖學十圖』의 작성이 68세 때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天命圖」의 존재는 이 『聖學十圖』 작성에 큰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된다. 「天命圖」와 『聖學十圖』와의 관계도 앞으로 一考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본론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天命圖」 가운데 기입되어 있는 「四端理之發, 七情氣之發」이란 구절을 두고 奇高峰(1527~1572, 이름은 大升, 字는 明彦, 高峰은 그의 號)과의 사이에서 전개된 四端七情論辨은, 退溪·高峰 양자간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 이것이 발단이 되어 오랜 기간에 걸쳐 조선유학자들 사이에서 白熱과 같은 議論이 전개되었다. 이 논변을 통해서 조선유학사상의 특성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天命圖」로, 이 점에 대해서는 他日을 기약한다.